

동국대학교 개교 90년

특집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 치사

천애하는 동국인 여러분!
오늘은 우리 동국대학교의 개교 9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본인은 이 영광스러운 날을 맞아 우리 동국대학교의 기쁨을 미려하신 구안발 불교계 선각들의 숭고한 구국정신과 조국의 미래를 내다보신 혜안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교 이래 한국현대사의 온갖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강인한 의지와 애국의 열정으로 동국의 오늘을 있게 한 종단과 역대 이사장 역대총장 교직원 그리고 동문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성어린 봉사에 대해서도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고해보면 우리 동국 이 개교하던 1906년 초에는 일제를 위시하여 세계의 열강들이 개화를 빌미로 우리 한반도에 침투하기 시작한 전환기로서 국운은 쇠퇴하고 한국불교 또한 큰 시련에 직면한 암담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때 나라를 울머루 구하는 길은 오직 교육밖에 없다는 자각과 신념으로 불교계의 대머들이 정재를 모아 명진학교를 세운것이 우리 동국대학교의 모태로서 이는 당시 불교계는 물론 우리민족에게 큰 축복과 희망을 주는 획기적인 불사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교한 우리 동국이 순탄한 길만을 걸어온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제하에서 항일운동 등으로 세번이나 폐교를 당하는 수난을 겪었으며 나라의 운명과 같이 6.25, 4.19, 5.16, 10.26 혹은 문민정부로 이어지는 현대사의 명암 속에서 우리 동국은 많은 역경과 난관을 극복하며 오늘의 명문대학으로 발전해온 것입니다.

이는 실로 동국인 모두의 의지와 애국의 승리로 감개무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90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겨운 우리



연구단지 설립과 불교종합병원 등의 건립 사업이어서 우리 동국대학교가 남북통일을 바라보고 있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희망적이고 거시적인 역사적사업이라고 자부하면서 매우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전 구성원의 진지한 노력 못지 않게 인화와 결속이 절실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

다. 따라서 개교 1백주년을 앞둔 우리 동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종단 재단 대학은 물론 동문 재학생 모두가 동국발전의 주체요 주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나부터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정성으로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며 헌신적으로 동참할 때 소기의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재단으로서도 동국발전을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과 가능한 지원을 다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동국발전을 위한 한 길을 걸어가서 30년 20년 10년의 장기근속 표창을 받으시는 교직원과 특별학술연구 및 공로표창을 받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도 충심으로 치하를 보내면서 동국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동국가족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자비공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정신 구현위해 동국중흥 동참합시다”

리 동국은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교육개혁을 통하여 세계의 대학 민족의 대학으로 도약해야 할 중대한 사명과 책무를 통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 해답을 무엇보다 불교정신의 올바른 구현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특성을 지닌 대학이 가장 세계적인 대학이라고 한다면 우리 동국대학교야말로 1천6백년 동안 우리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주도해 온 가장 전통적 종교

인 불교를 토대로 학문과 인격을 도야해 온 가장 한국적인 대학이며 곧 세계적인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동국은 개교 1백주년을 앞두고 본교발전에 지대한 권리와 진취적 기상을 지니신 송석구 총장님을 중심으로 대학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개혁과 창의적 발전계획이 적극적으로 기획 추진되고 있음은 우리 동국의 중흥을 위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국이 추진하고 있는 산하

통일시대 대비 교육개선 '박차'

종립 동국대학이 '참사람 만드는 열린교육'을 슬로건으로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개교 90주년을 맞아 내용은 동국대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통일시대 대학다운건설과 평생교육체제 실현, 일류고등교육의 도량 캠퍼스별 특성화계획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참사람 만드는 열린교육'에서 의미하는 참사람이란 참정하며 있는 사람 △자비의 실천으로 봉사하는 사람 △사색하는 사람

(캠퍼스 특성화)

- 서울-인문과학
- 경주-민족문화
- 제3-의료·산업



◇통일시대를 대비해 조성될 30만평규모의 대학타운 조감도

학문탐구·과학향상 지원강화 '21세기 참사람' 배출

최고의 교육·연구시스템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경영합리화, 행정전문화 및 평생교육체제, 자비실천 봉사 인력 양성을 실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위해 학교측은 금년부터 교수업력평가제 실시, 다전공 복합학문 연구의 현실화, 교수대 학생 비율 1:20 조정, 석좌교수 초빙, 교육 연구 행정 종합지원 전산망 구축, 도서관 전산화 완성, 각종 교육 연구 지원체제 구축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국대는 새로운 교육환경의 현실화를 위해 서울, 경주, 제3 캠퍼스를 특성화시킬 방침도 세우고 있다.

서울캠퍼스는 인문과학과 문화·예술의 교육과 발전을 핵심으로 하고 경주캠퍼스는 민족문화·지역발전의 견인차 양상도 앞으로, 제3 캠퍼스는 과학·기술과 의료 봉사의 교육 현장으로 중점 육성한다는 것이다. 특히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제3 캠퍼스는 1차적으로 양·향방 복합 종합병원을 1천병상 규모로 건립하고 2차적으로 산학연구단지를 건설할 방침이다.

산학연구단지란 각각의 분야에 유관기업과 협동체제를 구축해 교육 연구 개발의 산실을 이루는 특정화된 연구시설이다. 이를위해 학교측은 이미 컴퓨터 정보산업부

문의 협동체제를 삼성데이터시스템, 데이콤, 마이크로소프트사등과 지난해에 협정했으며 멀티미디어분야는 중앙미디어와 협정절차를 마쳤다. 화학분야는 금강 고려화학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중이며 기타분야에 대한 대상기업선정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교육과 과학기술분야 교육의 토대 마련을 통한 산학협동체제가 구축된 상태에서 3실민공 규모로 통일시대 대학타운을 건설한다는 것이 동국대의 복안이다. 대학타운이란 일정지역이 대학을 중심으로 울타리없이 연계되는 도시를 말하는 것으로 교육과 산업개발, 복지사업, 주민 편의시설, 문화시설등이 함께 연계된 미래형 도시구조다.

한편, 평생교육체제 실현과 자비실천 봉사인력 양성계획은 학점은행제도와 등록금 차등제(38년부터 실시) 사회교육기관 운영, 사회봉사 프로그램, 지역사회를 위한 교양·문화·예술강좌등으로 짜여져있다. 특히 사회교육기관의 운영은 사회교육원, 컴퓨터교육원을 통해 개원하고 불교통신대학을 내년부터 불교 TV와 협력해 시행하는등 교육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동국대 개교 90주년 주요행사

기념법회

- 일시: 5월6일 오후 4시
- 장소: 본교 정각원 법당
- 내용: 사인 고은선생을 초청해 '불교문학의 길'을 주제로 강연을 듣는다.

지대대학 총장초청

- 일시: 5월6일~8일
- 초청대상 대학: 미시간 주립대 메인주립대 뉴욕주립대(미국) 고토불교대 구텐대 용국대 대정대 동양대(일본) 서북대 중앙외국어학원(중국) 레겐스부르크대(독일)

기념공연 KBS 열린음악회

- 일시: 5월7일 오후 6시~9시
- 장소: 서울 캠퍼스 대운동장
- 출연: 송창식 태진아 심수봉 해바라기 박정운 테너 김영환 등
- 방송: 5월2일 일요일 오후 6시30분 KBS 제1TV

동국대 소장 국보보물전

- 기간: 5월6일~17일
- 장소: 불교박물관 2층 특별전시장
- 전시내용: 박물관 및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국보 및 보물급 문화재 212호 국보(대불 정여래일승수증의제보살상행수승엄경) 등 50여 점이 공개된다.

중국 민족공예전

- 기간: 5월6일~17일
- 장소: 학술문화관 전사실

동국인 저작도서전시 및 특별판매

- 기간: 5월6일~10일
- 장소: 도서관 앞

윤이상 기념음악제 비천(飛天)

- 일시 및 장소: 5월15일 오후 7시(여의도 KBS홀) 17일 오후 5시(본교 불상당)
- 내용: 1부에서 공연된 윤이상의 작품은 관현악곡 '바라' 가곡 '고풍의상' '그네'와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대왕의 축제' 첼로 피아노를 위한 '노래'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3중주곡 '삼중주' 등이 공연되며 이중 '고풍의상'과 '그네'는 국내에서 처음 연주되는 유고작품이다.
- 2부에서는 프랑스의 관현악곡 '대학축전서곡'을 시작으로 '산아' '오 나의 태양' '그리운 금강산' '밀양아리랑' '시골이가게' 등이 공연된다.

비전 동국100년 후원의 밤

- 일시: 5월29일 오후 6시
- 장소: 힐튼호텔 컨벤션 센터
- 내용: 동국대 발전 기금조성에 동참하는 동문 학부모 교직원 학생 각

계 인사등이 초청돼 동국 100년의 비약적 발전을 다짐하는 행사다. 다녀소와 기금전달 동국비전발표 영상쇼 축하공연등 프로그램이 다채롭다.

해양오염 및 환경보존학술심포지움

- 일시: 5월31일 오전 10시
- 장소: 학술문화관 중국장
- 주제: 해양오염 및 환경보존
- 내용: 해양 기름유출에 관한 현황 법규 정책 등을 어민대학 생태계 및 환경에 미치는 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조망한다.

경주 남산 살리기 실천대회

- 일시: 5월28일 오전 9시
- 장소: 경주남산
- 내용: 경주불교유적 바로알기 경주 남산 걷기대회 남산 살리기 걸의대법회 경주 남산에 관한 학술논문등 자료집 출간

청소년 환경대회

- 일시: 10월
- 내용: 1)서울 남산 살리기 실천대회 -철조망을 나무 울타리로 바꾸기 -남산 걷기대회 -남산커리합창제 그림 그리기 글짓기 풍물놀이 등
- 2)남산 제대로 알기 퀴즈대회
- 3)동국학원 산하 청소년 수계대법회
- 4)불교 환경운동 학술행사
- 환경훼손과 불교문화유산
- 사찰 음식문화에 대한 연구보고와 사찰 음식전
- 4)음악제
- MBC '생이 깊은 풀'
- 경주 청소년음악제

세계 불교 학술회의

- 일시: 10월24일~25일
- 장소: 학술문화관
- 주제: 21세기 문명과 불교
- 소주제: ·21세기 문명의 불교적 조망
- 종교다원사회와 불교
- 사회문명과 불교
- 자연환경·생명과 불교
- 한국불교의 세계화

비전 동국100년 후원의 밤(경주)

- 일시: 9월11일 오후 6시
- 장소: 경주 룡곡도 호텔

국악대음악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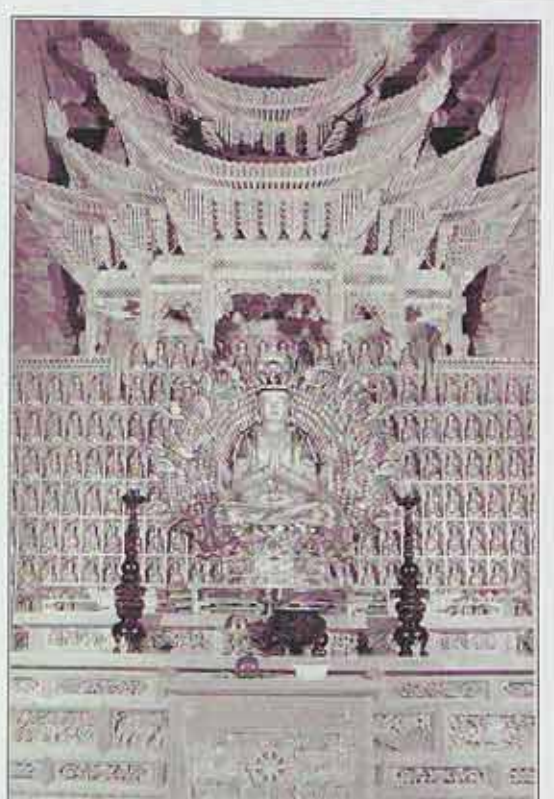
- 일시: 10월
- 장소: 미정
- 내용: 불교전통음악 무용 찬불가 국악관현악과 사물놀이 국악교성곡 등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상, 천불조상, 목명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달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전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 사 무 실 (02) 738-8447~8
- 공 장 (051) 804-8907
-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진형 합장